

글 심는 순서 Contents

- 04 나마스페, 동게스와리**
인도 동게스와리 결핵 퇴치 담당 김원자님에게 듣는다
- 07 필리핀, 민다나오**
민다나오에서의 2박 3일
행복을 느끼게 해 준 민다나오여행
분쟁의 땅, 민다나오를 산책하다
- 16 두북노인잔치 _ 소감문**
꽃 바람 향기 속에 주왕산 봄나들이 다녀왔어요
- 18 따뜻한 이웃**
사랑의 묘약으로 채워진 저금통
- 20 후원가족 이야기**
아름다운 세상 모금함 이야기
- 22 현장소식**
인도 · 필리핀 · 국내
- 26 후원안내**
신규회원 · 특별후원금
아름다운세상 저금통
미처리자 · 물품후원
CMS 신청안내





인도 동게스와리 결핵 퇴치 담당 김원자님에게 듣는다

정은주 서울정토회 복지사업부

JTS와는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지요?

정토회를 전혀 모르던 시절 가톨릭 신자로 성서 파트에서 일하던 중, 한겨레신문에서 우연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각 종교 단체의 수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방황하던 남동생을 위해 인터넷과 신문 기사를 찾아 꼼꼼히 읽어보다가 ‘깨달음의 장’ 프로그램을 동생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다녀온 후 많이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

음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전혀 웃지 않았던 동생의 얼굴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런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나도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 휴가를 내어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장 수련 마지막 부분에 인도와 북한 어린이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그린 영상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정토회에 입문하게 되면서 2006년 인도 JTS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등게스와리에서 만난 어린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결핵 파트에서 일하면서 한 학급을 운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입니다. 아이들은 살아야 할 날들이 많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 파트에는 2001년도부터 결핵 약을 먹고 있었던 밧찌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약을 주면 먹지 않고 버려,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이미 생겨 있었고, 성격도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밧찌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이었고, 밧찌의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에서 어린 밧찌는 집안 살림도 하고 가끔 동생들도 결핵 파트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주는 영양식을 동생들에게 먹이곤 하였습니다.

밧찌는 첫 번째 직접 복약 확인 대상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와서 식전 결핵약을 먹고 그 다음 우유와 밥을 먹고 다른 약도 먹은 후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밧찌에게 힌디어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 그리고 영어로 이름 쓰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야생마 같던 모습도 예쁘게 머리 빗고 오는 등 점점 길들여지고, 옷도 비록 떨어지고 초라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병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과 눈빛도 수줍고 부드러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2007년) 7월 말 밧찌는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아침 일찍 소식을 듣고 집에 갔을 때 밧찌는 집 앞 마당에 천을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밧찌의 엄마가 울부짖으며 뛰어 나왔습니다. 그때 많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밧찌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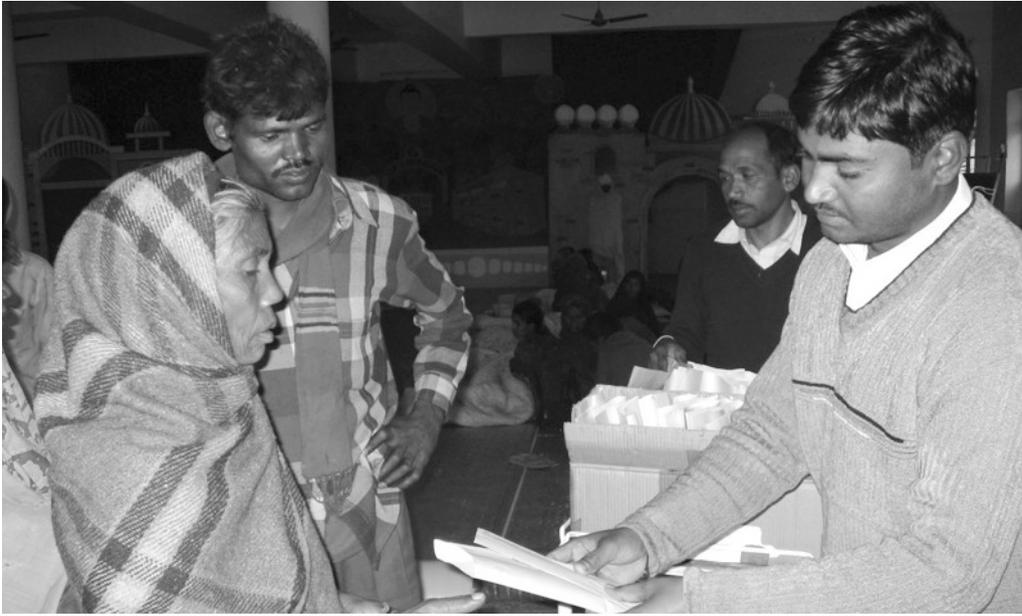
결핵퇴치 일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와 보람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결핵 환자들이 죽을 때 힘들고, 결핵 환자들이 완치될 때 기쁩니다. 결핵 환자들은 치료를 시작할 때 예치금으로 750루피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환자가 병원 치료를 하루 거르게 되면 예치금에서 하루치 예치금 25루피를 제하고 나머지를 완치 후 받습니다. 투약 중단을 막고 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먹게 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환자들이 완치되어 예치금을 돌려 받을 때에는 가슴이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비록 본인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과 함께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는 돈도 함께 돌려받으니,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나 참 기쁘지요(웃음).

때때로 환자들의 병이 중해 힘들게 고생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운 내어 다시 일합니다.

어린이 결핵 완치율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완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환자발생 대비 완치율은 현재 75% 가까이 됩니다. 일반 환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



지요. 어린이 환자들은 그 전에 약을 먹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낫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에는 한국의 결핵전문팀을 초빙하여 결핵사업 전반에 대해 진단하여 효율적인 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오랜 동안 결핵 파트의 꿈이었던 결핵 센터도 지을 예정입니다. 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재활원의 세 기능을 갖춘 결핵 센터를 만들어 환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투병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힌디어와 영어를 배우고 간단한 기술을 익혀 물품을 만들어 팔면서 완치되어 나갈 때에는 약간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와려고 합니다. 또 모범적인 완치 환자들을 병원의 스텝으로 고용하여 아픈 결핵 환자를 보살피고, 병원 운영에도 참여하게 하여 자

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된 전체 의료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데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 분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자비로운 마음 가득하지만 멀리 있어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죽을 고비에 처해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후원자님들의 자비로운 마음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TJS]

민다나오에서의 2박3일

이 동은 필리핀 교민신문 '마닐라서울' 기자

처음 필리핀에 온 것은 어학연수였지만, 필리핀 생활에서 온 묘한 매력에 사로잡혀 필리핀 생활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 광활한 자연, 순박한 필리핀 사람 등 필리핀의 매력을 만끽하며 나름대로 필리핀 생활의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아오던 필리핀 생활 2년째,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고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편하자고, 좀 더 자유롭게 살자고 선택한 필리핀 생활이었지만 이 삶을 얻기 위해선 버려야 할 것, 아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친구들과의 관계, 한국에서의 안정된 직장, 한국과 비교해 적은 급여로 인해 구입하기 힘든 물건 등 중요한 것이던 사소한 것이던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멀어진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불교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 최근엔 자기 전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신에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내 마음의 평안' 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우연히 취재차 방문한 민다나오에서의 2박 3일은 큰 의미로 다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보며 갑자기 제 머리가 멍 해졌습니다. 우리가 나눠준 사탕 하나에 행복해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허름하기 짝이 없는 학교 건물 하나에 기뻐하고, 외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 와줬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는 이들 앞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가진 게 없어 버릴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토록 힘들었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행복도 모르고 살아온 바보였구나.' '이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내 손안에 가진 모래가 새어나가는 것들에 가슴 아파했구나.' 제가 지금껏 힘겨워 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해발 2000고지에서 내 발 밑에 보이는 구름, 밤 하늘 지척에서 반짝이는 별들,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망울. 민다나오, 깨끗하고 성스러운 곳에 현실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오게 돼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밤엔 평안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JTS**



행복을 느끼게 해 준 민다나오여행

이 다 진 마닐라 국제학교 8학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여행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스스로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했다. 민다나오의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나는 최근에 경험 한 것 중 가장 훌륭한 경험을 하였다.

이 여행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 했다. 나는 이 여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념이 없었다. 나는 단지 부정적인 측면만 보았고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꼭 민다나오에 가서 사진을 찍어 주어야 한다는 등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설득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여행에 참가 하게 되었다.

이 여행의 주 목적은 송코 마을의 문화회관건립 준공식 참여와 알라원(Alawon)이라는 마을에 교육체제를 마무리 하는것을 돕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민다나오 (Mindanao)는 아직까지 외부지원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골에는 더더욱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 주민들이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아부 사얏 (Abu Sayyaf : 이슬람 근본주의)이 아직까지 민다나오 지역에서 정부군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서 민다나오는 필리핀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

으며, 아이들은 영어를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을 오르는 것은 나에게 가장 기대되는 것이었다. 비록 내가 그것이 힘들거라는걸 알았지만 말이다. 처음 30분 동안은 산행이 매우 편하고 쉬웠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산을 타는 동안 계속 이야기 하고 장난을 쳤다. 그리고 그 장엄한 광경을 즐겼다. 우리가 위험한 장소에 이를 때마다 나는 긴장감을 느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지만 산의 정상은 보고 싶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전에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끔찍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너무 힘이 들었다. 나는 물을 마시고 싶었다.

거의 절반쯤 왔을 때 나는 정말 물을 마시고 싶었다. 계속 올라가면 신선한 물과 실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웅! 속상해서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차라리 학원에나 갈 걸' 하고 후회했다. 그러나 곧 나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산에 다 올랐을 때 나는 나 스스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 내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추억을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보물처럼 간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산은 나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이다. 비록 내가 많은 고통을 겪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나는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알라원 (Alawon)은 가난한 마을이면서 학교가 없어서 JTS가 학교를 세워준 곳이었다. 스님과 어른들께서는 마을주민들과 학교운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아이들과 같이 놀았다.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쑥스러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쑥스러움을 줄이기 위해 '영어 배우기 게임'을 했다. 풀잎(Leaf), 플라스틱(Plastic), 신발(Shoe), 나무(Tree), 과자(Cookie)와 같은 여러 가지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흐뭇하고 즐거웠다. 이런 기회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다.

산에 살면서 사진을 찍어봤을까? 나는 아버지께서 사 주신 폴라로이드(즉석 카메라)로 많은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이 참 예쁘고 기분이 좋았다. 이들이 다시 사진을 찍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찍어주었다.

법륜스님, 많은 자원활동가님들, 그리고 기자 아저씨들과 2박 3일 동안 함께 보내면서 좋은 분들과의 만남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비록 힘든 여행이었지만 참으로 유익한 경험이었다. 나중에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이번 여행을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분쟁의 땅, 민다나오를 산책하다

-최정연 JTS 필리핀 활동가의
평화와 공동체 이야기-

임혜진 정토회 홍보국

간밤에 비가 내렸다. 만개했던 꽃잎들이 봄바람에
흘날렸다. 비 섞인 바람이 휘휘 부는데 맨 발의 한
사람이 정토회관에 들어섰다. 필리핀 민다나오 JTS
의 최정연 활동가였다. 1년 만에 찾은 서울, 그녀는
그렇게 필리핀의 열기를 맨발에 담아 왔다.

민다나오에서 JTS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
요? 빈곤퇴치 차원에서 학교를 짓고,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민다나오에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지 고민하
는 가운데 우선 학교가 없는 곳엔 학교 건설을
하고 주로 깊은 산 속에 거주하고 있어 외부와의
소통과 지원이 어려운 곳의 주민들에게는 곡식
건조장, 식수시설 등 마을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어요.



JTS가 2006년에 학교를 지어준 알라원초등학교. 정부에서 선생님이 파견되었지만 떠난 후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악과 춤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부족을 알게 되었어요. 송코라는 지역의 딸란딕 부족이었죠. 딸란딕 부족은 전통음악과 춤 뿐 아니라 전통의상, 공예품 그리고 그림, 조각품 등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있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들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고 이번 3월에 준공하게 된 Hall of Peace가 그들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 갈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다른 다양한 부족과의 문화까지도 교류하는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JTS의 활동 범위를 단숨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활동의 의미라고 할까요? 좀 더 듣고 싶네요.

그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척박해요. 푸르지만 실상 사람이 살기에는 힘들지요. 하루 세끼를 고스란히 고구마로 먹어야 하는 작고 가난한 곳이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자기를 길러준 산과 강 그리고 부모와 친지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예요. 그래서 내 이웃도 그와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속에서 갈등은 일어나더라도 개방적인 관점에서 개선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 발전해 나가죠.

송코의 딸란딕 원주민들은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자생력이 강하고 자긍심 또한 높습니다. 세계화 되어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배워 나가지만 흡수되지는 않아요.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가 강하죠.

무엇보다도 이곳의 아이들이 맑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밝게 순수하게 받아주는 모습들이 그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TS는 단순히 어려운 곳의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식량을 지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는 한 공동체임을 알아서 어느 한 쪽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서로 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생하자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JTS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대한 지원 활동이 새로운데요. 여기 원주민의 삶과 금지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주세요. 또 이후에 이들 원주민들과 한국의 정토회는 어떤 연관을 맺으면 좋을까요? JTS의 활동 성과와 연관해서 듣고 싶어요.

우선 이들의 전통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우리 전통문화와 교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JTS로서는 이런 원주민들의 문화를 다양

하게 만나서 지원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 지원 사업은 빠르고 편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해가는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자연을 자신의 삶의 신앙으로 삼고 거칠고 역센 손발로 땅을 일구어 자연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 가려는 이들의 노력을 존중해요. 우리 또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과 그 성찰에 대한 노력과도 상통한다고 봅니다.

민다나오JTS 최정연 활동가는 함께 일하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많이 배운다고 했다. 송코 마을의 다투 미키타이, 현지 활동가 도동과 트렐, 그리고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는 활동가 최기진, 송현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어우러지면서 민다나오를 밝게 하고 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어려움이 있고,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이런 과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JTS**





전통음악과 춤 뿐 아니라 전통의상, 공예품 그리고 그림, 조각품 등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있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구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은 감동이었어요.



꽃 바람 향기 속에 주왕산 봄나들이 다녀왔어요~

조인전 울산 정토회

이른 아침부터 남편과 아이들 아침밥 챙겨 놓고 아침 안개를 가르며 두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가볍고 즐거웠다. 두북에 도착 하니 이미 다른 자원 봉사자들이 사전 준비를 다 해 놓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함께한 봉사자들과 역할을 나누고 우리들은 어르신들을 맞으러 마을로 향했다. 이른 아침부터 봄나들이에 한껏 마음이 부푼 어르신들의 모습은 마치 18세 소년 소녀 같았다.

늘 그렇듯이 처음 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 긴장되고 급한 마음에 어르신들 인원 점검하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컸나보다. 옆에서 '목소리 좀 작게'라며 조용히 알려주었다. 그 순간 '아차, 그래. 내 목소리가 좀 컸지' 하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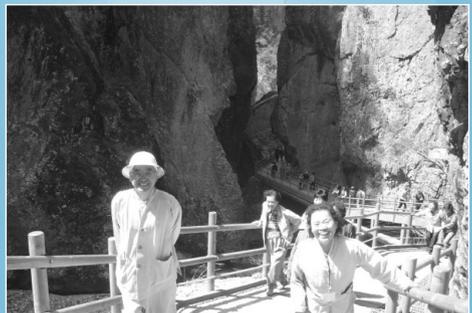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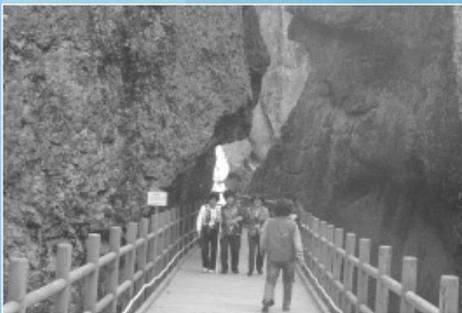
버스 안. 여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도 한 곡 하고 노래 선곡 도우미도 섭외 하면서 즐겁고 흥겹게 우리들의 마음은 주왕산을 향해 달려갔다.

드디어 주왕산 도착.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하차하시도록 안내하고 화장실 등을 점검하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난 힘들어서 산에 안 간다." 하시며 막무가내로 주차장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숨 한 번 크게 쉬고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을 건네 보았다. "할머니, 그럼 봉고차 타고 가요." 하며 겨우 대전사로 안내했다.

주왕산 1제 폭포로 가는 길, "와~아!!~" 그 아름다운 절경에 입이 절로 벌어져 다물



어 지지 않았다. 사진 찍고, 뒤풀이 어른신들 살피고, 화장실 점검하는 등 함께한 봉사자들과 서로 힘을 합해 행어나 불편한 점이 있을까 살피고 또 살폈다.

점심으로 맛있는 산채 비빔밥을 먹고 난 후 우리들은 어른들을 모시고 온천으로 향했다. 목욕 봉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봉사중 하나이다. 목욕탕 홀에 낮익은 얼굴. 어른신 잔치 때마다 매번 함께 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할머니~ 목욕하러 가요.”

“에고 난 힘들어서 못 하겠다.”

지난번에 뵈 때와는 또 다르게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았다. 탕 안으로 가서 우선 할머니를 먼저 씻겨드리고, 다른 어른신들 등을 밀어드리며, “할매~ 가슴 한 번 만져보자. 아이고, 좋아라. 꼭 엄마 가슴 만지는 것 같

네.”하며 너스레를 떨어 보았다.

눈물이 핑 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가슴을 만졌던 나. 엄마 생각도 나고 병원에 계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할머니 등을 밀면서 나는 어릴 적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평소 어른신들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는 나였는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매년 약해지시는 어른신들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찡해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푸근해 지고 어른신들 보다 내가 더 얻어 오는 것이 많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쁜 할머니들~ 건강하시고 올 가을에도 꼭 뵈요.~ [JTS]





사랑의 묘약으로 채워진 저금통

권 준 희 경기도 남양주 광동중학교 교사



“돼지 저금통 어디 있어요?”
“저는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한 아이가 책상 속에서 등장한 돼지 저금통에
천 원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접어 넣는다.
불교학생회에서는 매주 법회 때마다 지구촌 어
린이를 돕기 위해 100원 보시하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모여진 17만원

을 JTS에 기부하였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제 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 또 작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구촌 어린이 돕기 물품판매
행사’를 열어 여기서 나온 수익금 전액을 JTS
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주머니 속 용돈을 매점에서 써버리기 쉬운 아이들이지만 기회를 마련해 주면 마음 속에 숨겨 두었던 자비의 마음을 보란 듯이 내어놓는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아이들이 어찌나 대견하고 예쁘게 보이는지... 학교 다닐 맛이 난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종교 수업시간에 '어린이날'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JTS 홍보 동영상 을 통해 보여 주면서 돼지저금통을 분양하고 있다. 저금통 받아갈 때는 가득 채워서 가져 오겠다고 마음을 내지만 저금통을 채워 가져오는 아이들은 3분의 1정도다. 차곡차곡 쌓이는 동전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나이에 저금통을 선풍 내놓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어떤 아이는 하루 만에 동전을 가득 채워 오기도 하고, 며칠 전에 장학금을 받았으며 만 원짜리 지폐를 넣어오는 아이도 있다.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아이가 수업시간마다 교과서를 안 가져오고 장난을 쳐서 종례 후에 따로 불러 주의를 주고 돌려보내는데, 대뜸 “저희 집에 동전 많은데, 돼지 저금통 하나 주세요.” 한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저금통을 주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와 “여기 있어요”하며 내놓고는 가버린다. 비록 십 원짜리였지만 더 이상 들어갈 틈 없이 가득 채워진 저금통을 보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날 이후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아이는 예

전과 똑같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데도 예전과는 다르게 그 아이가 예쁘게 보이는 것이다. 저금통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돈 통이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묘약으로 가득 차있음을 이때 알게 되었다. 이때 받은 충격의 영향으로 올해도 돼지저금통을 한창 분양 중에 있다.

법당에 놓였던 자그마한 돼지 저금통이 올해는 큼직한 보시함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보시함에 ‘꿇주리는 어린이를 돕는 데 쓰입니다’라는 안내 글을 붙여 놓고 불교학생회 뿐만 아니라 법당에 오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동전과 보시함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크게 들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시함이 사랑과 자비의 화음으로 가득차기를 기다려본다. **JTS**



계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세상 모금함 이야기

정 경 희 울산정토회

2006년 3월 울산 박선영 총무님이 저에게 돼지저금통 관리를 맡아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들어오는 저금통을 계수하고 입금 송금하는 일이라 가볍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9월쯤 일이 손에 익을 무렵 저에게 주변 상가 등에 모금통을 비치해보면 어떨까하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분들 가게에 부탁해서 놓아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는 분들의 명단을 만들어 한 달에 십여 군데 씩 돼지저금통을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울산 라이온스클럽에서 제작해 준 아크릴 모금함이 비치된 사업장에서 임용원 후원자님과 함께. 오른쪽이 정경희님.



처음에는 돼지저금통이 너무 일반적인 이미지라 차별화된 JTS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좀 더 산뜻한 아크릴 모금함으로 교체해 볼까 생각하였으나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일단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모금되는 상황을 점검해 보니 돼지저금통의 수거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치된 모금함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인상도 받았고요. 그렇게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차츰 자리를 잡아 가는 중 작년 8월에는 울산지역의 봉사단체인 남울산 라이온스클럽에서 아크릴 모금함을 50개를 제작하여 라이온스 회원들의 사업장에 비치해 해주셨습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아크릴 함을 선뜻 제작하여 주시고 또 비치하시는 데 도움까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007년 총 모금액은 약 100 여 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기 전에는 없던 모금액이 새로이 생겨난 것이 반가웠습니다. 상가들을 방문할 때 잘 채워져 있지 않은 돼지 저금통을 보며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하면서, 그리고 모금함이 잘 채워지지 않는 가게의 사장님들이 저에게 미안해 하실 때면 혹시 저금통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실까봐 비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지해온 모금함들.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거치대 위의 돼지를 바라봅니다.

올해 1월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소홀히 한 몇 달 사이에 어느 가게의 사장님이 모금함을 버렸다는 말씀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나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모금함 속에 모인 동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역별로 모금함의 비치처를 나누고 지역별로 방문하고 관리를 해줄 봉사자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여서 부족했던 비치처 관리가 더욱 잘 이루어지리라 기대 해봅니다. [JTS]





2



3



4



5-1



5-2



7



9-1

인도소식

1 2008년도 신입생 입학

올해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수는 신입생 총281명, 총 학생 878명이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의 불가촉천민 비율은 74%, 여학생 비율은 47%입니다. 3월 10일부터 새로운 반과 교사가 구성되어 즐거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교생에게 책가방과 책, 공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 선서식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 89명이 3월 28일 법당에서 자랑스러운 상급생이 됨을 기뻐하며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신입 상급생은 40명입니다. 이날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선서문의 의미를 새기고 함께 낭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선서식 이후에는 자원봉사 업무 발표가 이어졌고 유치원, 학교, 병원, 사무국 파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 9학년 자원봉사 선서식

올해부터 수자타 아카데미는 상급생 자원봉사 학교로 거듭나기 위하여 9,10학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9학년 학생 중에서 스스로 학업도 열심히 하고 주3일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6명의 학생들이 3월 27일 학부모님들을 모신 가운데 잠시 귀국한 뿌리안카지의 통역과 야칸차 시스터의 인례에 따라 자원봉사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각오를 세우고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4 즐거운 교사 교육

수자타 아카데미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인 상급생 29명이 3월 30일부터 4박 5일동안 세바 켄드라에서 진행되는 즐거운 교사 교육(Joyful learning)을 참가하였습니다. 세바 켄드라에서 활동하는 마을의 흥수로 인한 재난대비 마을 활동을 견학하였고 이어서 켈카타의 빅토리아 기념관, 인디언 박물관, 마더 테레사 하우스, 과학도시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5 홀리 행사와 선물 지급

지난 3월 20일에서 3월 22일까지 홀리로 인한 방학이 있었습니다. 홀리는 우리의 규정과 같은 날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3월 19일에는 학생들과 홀리를 맞는 행사와 함께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로 구호품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6 암베드카르 탄생 기념행사

수자타 아카데미 전교생이 참석한 아래 4월 14일 암베드카르 탄생 기념행사가 프락보디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연설, 노래, 드라마의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시 제공과 함께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여름철 슬리퍼를 주었습니다. 상급생 학생들에게는 상급생용 교복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7 구충제 및 비타민 단체 투약

40도를 웃도는 극서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구충제와 비타민을 단체 투약하였습니다. 이 약들은 2007년 12월 콘테이너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보시를 받은 것으로,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 건축파트, 결핵환자 등 2000여명에게 구충제 3일, 비타민 13일치가 투약되었습니다.

8 제 6차 극빈자 구호품 지급

지난 3월 18일, 수자타아카데미 뿌락보디홀에서는 동게스오리 16개 마을에 거주하는 극빈가정 41가구(총 101명)를 대상으로 식량, 의류, 의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극빈구호는 인도의 새해인 홀리 축제를 앞두고 이루어져 외롭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더욱 뜻 깊은 새해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각 마을 지도자들이 가구조사, 물품포장, 분배활동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9 제2차 무료 피임수술 캠프 진행

지난 2월 23일에서 24일 1박 2일간 인도 JTS 지바카병원이 주최하고 비하르정부 보드가야 PHC (Primary Health Center. 읍면 단위 정도의 보건소)가 후원하는 무료 피임수술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임수술을 원하지만 가난해서 수술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병원과 공조하여 진행한 2차 캠프에서는 40명의 아기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부병원은 의료진 29명과 함께 수술장비, 수술약품을 후원하고, 환자 임상병리검사비, 수술 후 내복약, 추가 의료비용은 JTS에서 일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수술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한국에서 보시된 이불과 매트리스, 베개를 환자들이 사용하고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한편 정부병원에서는 수술 후 영양공급이 충분히 안되어 회복이 더디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JTS를 통해 환자 1인당 식비보조금 600루피를 지원하여 피임수술 캠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10 사무국장 이취임식

4월 14일 마을지도자와 학생들이 참여한 암베드까르 탄생기념행사에 이

어 2005년부터 3년간 사무국장을 역임한 장영주님이 이임을 하고 박애란님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한편 2006년 6월부터 마을개발 업무를 해온 오태양님이 한국으로 가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활동하셨던 최기진님이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정다영님이 총무업무를 맡게 되어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필리핀소식

2008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의 JTS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과 JTS 자원 활동가와 후원자들이 필리핀 민다나오를 다녀왔다. 3월 26일에는 민다나오 부키드논 주 란타판시 송코 마을의 평화센터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3월 27일에는 교사가 아직 파견되지 않아 학교가 완공된 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알라윈 지역을 방문하여 마을 지도자들과 향후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어 3월 28일에는 민다나오 부키드논 주 리보나시 깔라수안에 완공된 휴집 학교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11 송코 평화 센터 준공식

2008년 3월 26일 민다나오 부키드논 주 란타판시 송코 마을에 JTS와 코이카가 지원하는 평화 센터(Hall of Peace)의 준공식이 있었다.

한국에서 법륜스님,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 김홍신 전의원, 최말순, 김경희, 조연현, 이경주, 박종찬(한겨레 기자단3명), 김재승, 박명화, 이종주, 이충만, 이상근, 백찬문, 이원주 JTS 필리핀대표, 노재국, 이종섭, 강한철, 이규초, 엄원섭, 최찬익, 서진희, 엄형돈, 이다진, 김상근, 이동섭, 김인(코이카 필리핀 소장), 이동은(마닐라 서울 기자)이 참가했고, 민다나오 JTS 현지에서는 도동, 트렐, 최정연, 송현



9-2



11-1



11-2



11-3



11-4



11-5



12-1

현장소식



자, 티에자, 미오, 리코, 파트리샤, 루이스, 준준, 최기진이 참가했다.

평화센터는 민다나오의 소수 원주민 중 하나인 딸란딕 부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어 민다나오 전체 원주민 대표간의 회의장으로, 그리고 각 원주민 전통 공예품과 미술품의 전시장이거나 전통 음악의 공연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날 김인 코이카 필리핀 소장은 축사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송코 마을에 오게 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평화센터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평화센터가 전통문화와 전통생활방식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장이 되고, 지역 발전의 메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센터를 준공하는데 애써주신 JTS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에는 218명의 현지 마을 자원 봉사자가 참가했고 일일평균 15명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1년 1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이 공사를 통하여 이 곳의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주변 원주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분쟁이 잦은 이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알라원 학교 방문

3월 27일 아침 8시에 출발하여 4시간 정도의 산행 끝에 드디어 알라원에 도착했다.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학교에서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JTS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13 갈리수안 휴 집 학교 준공식

3월 28일 민다나오 부키드논주 리보나시 갈리수안에서는 리보나 시장 대리인과 까피한 바랑가이 캡틴 대리인 등 여러 관계자들을 모시고 휴 집 학교 준공식 행사가 있었다. 갈리수안은 2007년 4월에서 2008년 2월까지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공사 참여인원은 135명(일일평균 8명)이 참여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가난하여 농장에서 품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학교 건축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마을 어린이들이 직접 자재를 운반하기도 하였는데, 강에서 학교 건축 공사장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흙벽돌을 만들어 학교를 짓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민다나오 최초로 흙으로 만든 흙벽돌 학교를 건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믿지 않아서 한국에 사진 자료를 요청하여 그것을 받아 인화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 학교 건물이 준공되어 갈 즈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흙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학교 건축에 참가하였던 많은 주민들이 향후 집을 지을 때 흙벽돌로 짓겠다고 한다. 물론 이는 리보나시 기술자도 인정하였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흙집을 짓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흙집의 건축은 산골 마을의 경우 나무로 집을 짓는데 나무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숲을 보호하고 환경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소식

14 중국 빈민아동 돕기

4월 10일~15일까지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과 해외개척팀 김경희님이 중국 조선포자치주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해 현장방문을 했다. 238명을 만나 지원금을 전달하고 문구류와 생활필수품을 나누어 주었다.

15 Body & Soul 북한농업지원을 위해 방문

4월 11일 다카하시 켄키치 씨가 방문해 주셨다. 단체가 해체가 되는 데 마지막 후원금을 북한 농업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750,000원을 전해 주셨다. 작년한해 북한에 지원했던 내용을 영상물로 공유해 드렸고, 몇 년동안 간헐적으로 꾸준히 지원해 주셨던 회원분들께 감사말씀 전한다. 일본파트를 담당해 주고 계신 장옥희님과 동행하셨다.

16 인도 사업보고회

JTS 회의실에서 일시 귀국한 인도 활동가들의 사업보고회가 있었다. 4월 4일 결핵파트 활동가 김원자님이 일년동안 결핵파트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다. 4월 22일 건축파트 담당 김재령님이 기숙사 싯타르타하우스를 짓기까지 있었던 과정을 들려주셨고, 마을개발파트를 담당한 오태양님이 동계스와리 마을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보고회에 함께 한 서울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 활동가들이 더욱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하셨다.

17 필리핀 사업보고회

4월 18일 필리핀 사업에 대한 보고

회가 JTS사무실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필리핀 현지 자원활동가인 최정연님과 송현자님께서 생생하게 진행해 주셨다. 송코 평화 센터 준공식과 깔라수안 학교 준공식 등에 대한이야기도 자세하게 전달해 주어 현장의 활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18 카파코리아에서 아동부츠와 슬리퍼지원

4월 8일 아동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176박스에 8,247족을 담아 보내주셔서 188,137,300원 상당의 지원과 같습니다. 두북창고에서 울산정토회 활동가 여러분들이 전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현장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19 두북창고정리

4월 8일 두북 창고에서 울산 정토회 자원봉사자님들이 기증받은 물품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정인호님, 김기왕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작업도중 잠깐 포즈를 취해주셨네요. 퇴근 후 모두들 바쁜 시간을 내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0 김스 클럽 물품 기증

서울반포 김스클럽에서 문구류 2박스를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 전달하겠습니다.



신규회원(개인·단체)

2008년 2월 1일~2008년 3월 31일

인도 및 제3세계		인도 및 제3세계		인도 및 제3세계		인도 및 제3세계		인도 및 제3세계	
남동아시아계 S0029026	박순환 P0028222	장영숙 P0001720	김태훈 P0015482	장태영 P0028696	이종현 P0008919				
(주정안(관아) S0028508	박운규 P0011245	전군자 P0028561	김현우 P0028422	조현주 P0009464	지비비전 P0028169				
강경일 P0023406	박인숙 P0028701	정병찬 P0011787	김현진 P0028300	최홍수 P0028713	정유진 P0028263				
강두석 P0023217	박정현 P0023348	정성숙 P0023811	남은희 P0017070	최문경 P0028583	장재영 P0022298				
강해인 P0003797	박종부 P0028903	장숙년 P0007163	류귀순 P0028166	최민희 P0028584	최진실 P0028904				
구정욱 P0021213	박홍배 P0017301	정연옥 P0028171	류남숙 P0019495	최순호 P0023420	최채환 P0028305				
권정애 P0008038	서순영 P0028712	정유진 P0028263	문진영 P0026410	최재호 P0022674					
권창희 P0028752	손영희 P0001715	정재남 P0004106	박명옥 P0028233	최희정 P0020143					
권혜숙 P0009869	손정란 P0028306	조보경 P0026288	박미영 P0028557	최철희 P0028172					
김경란 P0009649	송영애 P0028717	조영옥 P0013210	박희범 P0028548	추기복 P0028412					
김기산 P0028250	신정인 P0015433	조명애 P0028073	배보람 P0028488	하은이 P0012499					
김두선 P0020247	심유현 P0002366	차윤실 P0028582	서태용 P0028710	허두영 P0028262					
손현이(주.쇼-3 P0028424	안성화 P0027186	천미향 P0028568	손승환 P0016167						
김지희 P0028541	안진희 P0028253	천성필 P0007781	손정란 P0028306						
김산선 P0028902	양희준 P0028989	최문경 P0028583	송복귀 P0006710						
김성정 P0005354	엄익현 P0028700	최민희 P0028584	송지희 P0022625						
김승이 P0004523	여승준 P0021373	최정연 P0016509	심은희 P0028428						
김수현 P0028505	예희형 P0028413	최정옥 P0027130	엄익현 P0028700						
김용주 P0028718	오명희 P0015523	최정희 P0020143	여용열 P0013470						
김우임 P0026326	유미선 P0028096	하은이 P0012499	유미경 P0005030						
김재홍 P0028301	윤기보 P0028364	한세진 P0028408	유미선 P0028096						
김재훈 P0028420	이공이공재단 S0028431	현타스님 P0028491	이경한 P0025808						
김정숙 P0008115	이광성 P0014088	해밀 P0028404	이교현 P0028406						
김지영 P0028472	이근만 P0012850	해춘스님 P0028407	이성우 P0028186						
김진아 P0028405	이병인 P0019747	황진이 P0000643	이순이 P0028241						
김재영 P0028706	이상학 P0013181		이신희 P0025784						
김철수 P0012315	이선화 P0028363		이연환 P0028298						
김태순 P0003971	이성수 P0016848		이영미 P0028411						
김태정 P0028580	이성우 P0028186		이원용 P0027295						
김태희 P0028421	이영미 P0028411		이윤정 P0028487						
김현진 P0028300	이윤정 P0028487		이은미 P0028410						
김혜정 P0009910	이은경 P0028540		이은영 P0028303						
노진화 P0022994	이은미 P0028410		이재화 P0027367						
류귀순 P0028166	이은영 P0028303		이종인 P0024213						
문진영 P0026410	이재숙 P0024665		임혜정 P0028080						
민경근 P0011465	이재하 P0028242		자비비전 P0028169						
민응기 P0013689	이재화 P0027367		장세정 P0028255						
박도현 P0028907	이종은 P0008916		장종화 P0023363						
박미영 P0028557	이종현 P0008919		전재화 P0018304						
박병숙 P0028299	이태문 P0028694		정미경 P0027904						
박선진 P0010695	장민영 P0026442		정수연 P0022483						
박선향 P0028716	장세정 P0028255		정유진 P0028263						

인도 모자보건

(주정안(관아) S0028508	강해인 P0003797
김혜인 P0003797	공윤성 P0028362
김영신 P0022298	김용기 P0026341
김진실 P0028904	김정민 P0026455
최채환 P0028305	김태훈 P0015482
	김효숙 P0014334
	남은희 P0017070
	박미영 P0028557
	박양화 P0023326
	서성민 P0025641
	소춘미 P0027905
	신지은 P0005988
	엄익현 P0028700
	유미 P0028100
	유미경 P0005030
	유정수 P0028486
	이상봉 P0028715
	이상업 P0028195
	이은미 P0009075
	이윤정 P0028487
	이은미 P0028410
	이혜정 P0025879
	임혜정 P0028080
	장성호 P0012077
	정유진 P0028263
	조혜진 P0005133
	최정희 P0020143
	최채환 P0028305
	최철희 P0028172
	최정운 P0005754
	한영태 P0009566

북한 개발후원

손현이(주.쇼-3 P0028424	강해인 P0003797
김진아 P0028405	김보년 P0028409
민형정 P0009881	김순호 P0004602
손영성 P0017689	김우임 P0026326
엄익현 P0028700	김재홍 P0028301
여용열 P0013470	김진아 P0028405
윤광열 P0025765	김학만 P0010825
이재영 P0021965	김현진 P0028300
이종현 P0008919	박명옥 P0028233
지비비전 P0028169	박미영 P0028557
최순호 P0023420	박영수 P0028427
최우혁 P0022054	손찬익 P0026248
	여용열 P0013470
	이영미 P0028411
	이은미 P0028410

결핵 퇴치후원

강해인 P0003797	이혜정 P0025879
김보년 P0028409	임혜정 P0028080
김순호 P0004602	장성호 P0012077
김우임 P0026326	정유진 P0028263
김재홍 P0028301	조혜진 P0005133
김진아 P0028405	최정희 P0020143
김학만 P0010825	최채환 P0028305
김현진 P0028300	최철희 P0028172
박명옥 P0028233	최정운 P0005754
박미영 P0028557	한영태 P0009566
박영수 P0028427	
손찬익 P0026248	
여용열 P0013470	
이영미 P0028411	
이은미 P0028410	

북한어린이 결연

(주정안(관아) S0028508	강해인 P0003797
김준원 P0028425	이원용 P0027295
김재민 P0003797	이윤정 P0028487
김정민 P0021213	이은미 P0028410
김경순 P0011150	이은영 P0028303
김두선 P0020247	이재화 P0027367
김송이 P0004523	이종인 P0024213
김수현 P0028505	임혜정 P0028080
김순덕 P0005516	자비비전 P0028169
김우임 P0026326	장세정 P0028255
김재홍 P0028301	장종화 P0023363
김정숙 P0008115	전재화 P0018304
김종택 P0028489	정미경 P0027904
김진아 P0028405	정수연 P0022483
김태순 P0003971	정유진 P0028263

특별후원금

2008년 2월 1일~2008년 3월 31일

(주동송연지(내) 150,000원	김유진 35,000원	박종부 18,920원	100,000원(한국교회 출판 후 장덕환 후원)	이상봉 10,000원	이향순 30,000원	하은이 60,000원
김경례 100,000원	김일윤	박종부 100,000원	이상봉 10,000원	이상수	이혜정 10,000원	김순옥
김광선 300,000원	100,000원(김정은 생일축원)	박종희 200,000원	이상수	이혜정 100,000원	이혜정 100,000원	50,000원(최대성 영가 후원)
김규리 150,000원	김진희 150,000원	배낙형 50,000원	100,000원(이동현 생일축원)	임영광 80,000원	임영광 80,000원	
김나영 100,000원	김현민	배낙형 150,000원	이은선 10,000원	임은숙 260,000원	임은숙 260,000원	
김민지 10,000원	50,000원(생일축원)	서희정 100,000원	이원기, 이정우, 이항기, 이우선	장세정 100,000원	장세정 100,000원	**자란후 특별기부금에서 빠진분들입니다.
김병주 90,000원	제영호	손정남 500,000원	300,000원	장홍수	장홍수	
김상현, 심유현 50,000원(생일보시금)	1,000,000원(돌기남)	신정화 24,000원	100,000원(인도프림지원)	100,000원(인도프림지원)	100,000원(인도프림지원)	100,000
김석용 50,000원	제영호	양희준 100,000원	이종호 2,500,000원	이재화 129,453원	이재화 129,453원	김효식 100,000
김석용 50,000원	1,000,000원(돌기남)	여용열 100,000원	이종호 1,000,000원	정나영 30,000원	정나영 30,000원	
김성남 50,000원	문진영 36,000원	여용열 200,000원	이종호 1,500,000원	조대제 60,000원	조대제 60,000원	
김소영 300,000원	민경근 10,000원	윤명옥 100,000원	이종인 2,500,000원	조현주 5,200,000원	조현주 5,200,000원	
김용기 70,000원(김민우 탄생축하금)	민응기 10,000원	윤주완 100,000원	이태문 500,000원(결혼기념일 기념)	차주봉 20,000원	차주봉 20,000원	
김유진 500,000원	박영기 20,000원	이동근 300,000원	이태조 150,000원(이서영 생일축하금)	최근대 100,000원	최근대 100,000원	
	박운규 50,000원	이한길		최진실 50,000원	최진실 50,000원	
				하은이 60,000원	하은이 60,000원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 대구

귀화제작 24,850 김동수 23,930 김동현 24,380 김명숙 11,220 대구고대 8,260 무명 47,450 박정훈,정원 48,990 박준영 26,000 백운선 6,220 손창원 19,170 염선희 22,450 이귀예 31,020 이영선(4개) 65,070 이유환 9,620 장선옥 35,360 학남중 12,900 학남중2-7 16,480 학남중3-2 10,350 학남중3-6 29,710 학남중3-7 16,120

→ 대전

곽영술 48,190 무명 63,680 무명 20,020 무명 4,970 무명 12,000 무명 8,050 성재훈 14,600 수정수퍼 75,110 이지하 25,980

→ 동래

곽경린 10,690 김경중 37,120 김옥래 30,960 김현철 37,420 김현철 69,350 무명 10,450 무명 5,950 무명 5,600 무명 15,060 무명 19,820 무명 14,000 무명 3,000 무명 17,130 무명 14,440 박이영 6,230 박운희 27,700 범문주 133,200 서승희 21,870 서승희 17,320 서승희 19,580 서정화 24,560 우중현 25,200 이왕진 31,860 이정희 36,170 이향순 28,050 정철상 43,900 주용근 10,110 최하영 13,980

→ 마산

강윤진(한유자) 166,000 거제중곡초등4-1 24,150 거제중곡초등4-1 2,250 거제중곡초등4-1 11,350 김삼선 20,980 김영자게 38,380 김정선 16,490 네오화장품 10,870 대방동 김영자 6,730 무명 36,690 박기범(박근숙) 61,100 박명희 53,630 안병주 53,820 어시장생선가게 21,540 윤재식 25,910 조문상 23,500 하병훈 62,080

→ 서울

가스안전 가족사랑 15,030 가은우체국 12,860 강민구,강지원 28,870 강영희 22,230 고윤아 34,820 공경수 40,110 객진규,김명숙 11,670 객진선 24,000 광동중법당 13,500 권유선 21,360 김경남 37,280 김남훈 157,870 김승이 11,830 김숙희 25,080 김승일 2,050 김승황 32,330 김옥민 11,300 김월섭 7,110 김장기 60,000 김중현 23,270 김진경 10,420 김찬영 24,160 남진우 38,740 노가람 25,720 돈암한의원 10,420 목우촌정육점 8,870 무명 31,650 무명 26,110 무명 30,280 무명 14,380 무명 16,620 무명 17,620 무명 14,100 무명 17,060 무명 1,670 무명 19,670 무명 12,090 무명 15,610 무명 26,050 무명 18,730 무명 18,070 무명 31,580 무명 12,900 무명 37,920 무명 24,210 무명 9,840 무명 25,520 무명 106,950 무명 25,200 무명 20,960 무명 22,580 무명 34,050 무명 13,100 무명 23,220 문경가은농협 27,750 문명곤 20,320 박경미 31,830 박무춘 9,620 박인아 34,200 박지원 8,390 박찬이 47,670 박혜은,김윤희,방효진 14,930 배용태 23,000 백승우 21,230 백승우 35,120 북삼농협 24,860 설악주여당 45,210 신경훈 20,110 신한남부터미널 14,010 신한서초남 4,580 안수정 57,960 안중국 33,430 알파자기124,718 알파자기 76,334 **오류** 초등학교4-7반 22개 117,360 (김범석 1,380 김범철 3,800김수형 1,550 김정진 2,230 김정현 4,120 김진선 960 나성탁 790원26센트 박준영 6,330 박준영어머니 5,690 신민경 2,650 심화영 4,400 엄은지 7,360 윤아람 15,420 윤은혜1,180 이영진 6,750 정유진 1,200 정인아 3,010 조민정 4,410 조민정어머니 4,900 조홍상 13,800 최세영 1,500 한지는 13,930 오승재 18,270 왕선희 23,110 우정 12,420 우태열 35,000 유광중 12,470 유미정 19,650 유성현 40,460 유성현 34,210 유용검 27,750 유재선 22,160 유지선 8,090 윤명희 20,700 윤상석 53,860 윤애섭 20,390 윤여준 4,600 윤영화 29,570 윤태순 16,120 이기연 7,020 이민철 33,230 이상현 30,320 이영희 28,980 이옥현 100,060 이윤희 31,740 이정권 16,960 이준영 27,200 이창주 23,830 이택권 20,620 이현주 27,860 임기연 26,170 자비익자금품 1,990 장도현 17,210 정영남9,310 장예진 21,750 장예진 22,550 장예진 33,970 장혜민 23,670 장혜민 28,080 장혜순 38,470 전범수,유지미 22,550 전용수 25,310 정다영 10,150 정성수 11,770 정인숙25,720 정한정 4,790 정해은 19,000 최미화 53,490 최상재 32,090 최순호 33,050 최은석 27,690 큰작사 11,130 한명옥 24,870 한보살님 21,850 한혜자 45,960 허민지,민영 21,240 허지는 15,070 홍숙희 63,840 황동환 4,400

→ 울산

건우하우정랜드 45,510 김가람 16,360 김산 20,970 김수환 20,250 김승필 8,350 김일운 34,780 김정호 24,440 김진모 9,980 김준남 33,400 김효자 26,910 남울산 라이온스 12,100 두북농협 14,030 두북봉계농협 7,500 무명 19,540 무뫼나촌담 25,530 박복주 18,540 박은선 16,750 석남사가는길 27,200 솔뚜껍살김살아음 31,640 **월계초등학교 5-2반 11개 91,360** (강덕영 1,150 김동훈 28,050 월계초등5-2반 9,870 이승현 10,930 이원준 17,560 이재영 1,900 임기영 3,060 임도윤 6,990 장 시연 2,910 정혜천 1,600 추정수 7,340) 유영순 18,300 장숙희 22,830 조준희 14,750 한강스토아우정점 15,260

→ 제천

갈장미,갈기현 3,960 김지현 11,060 무명 21,480 무명 2,560 신금정 7,620 유건희 3,390 윤지현 7,030 정지은 17,640 제천법당 13,840 제천한살림 23,010

→ 청주

김용련 27,800 김정식 44,420 김진욱 30,280 오수민 26,190 이영진 11,580 이종준 151,260 이주영 21,720 이주희 29,000 장승희 30,620

*거리모금 현황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김천 76,200 대구 728,870 대전 55,000 동래 862,020 마산 5,018,937 서울 4,304,060 울산 1,474,027 제천 173,070 해운대 453,040

미처리자

2008년 2월 1일~2008년 3월 31일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 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20080211	115699108	외 환	20080311	김용근	국 민	20080227	박양미	국 민	20080304	유동근	농 협	20080211	장혜영	농 협
20080228	2110066311	농 협	20080214	김용주	농 협	20080319	박정희	국 민	20080220	유상혁	국 민	20080306	장혜영	농 협
20080328	2110066311	농 협	20080211	김은미	신 한	20080205	박화정	우체국	20080320	유상혁	국 민	20080331	장혜영	농 협
20080225	(주)켄스필드	국 민	20080327	김은숙	국 민	20080305	박화정	우체국	20080211	유숙이	국 민	20080211	전우정	국 민
20080325	(주)켄스필드	국 민	20080309	김지형	신 한	20080317	배명숙	농 협	20080226	유화연	신 한	20080307	전우정	국 민
20080228	(주)웅진윌딩스	국 민	20080215	김정순	농 협	20080211	백경희	농 협	20080312	윤명희	국 민	20080204	전정숙	국 민
20080307	가은우체국장	국 민	20080317	김정순	농 협	20080306	백경희	농 협	20080306	윤상석	국 민	20080205	전진숙	신 한
20080305	강미경	제 일	20080212	김종선	국 민	20080312	박상순	국 민	20080305	윤애석	국 민	20080211	정경자	국 민
20080215	강법선	국 민	20080211	김태민	신 한	20080229	부산 박정옥	제 일	20080225	이경희	국 민	20080310	정경자	국 민
20080201	강성욱	하 나	20080325	김태민	신 한	20080205	비룡사	농 협	20080325	이경희	국 민	20080331	정순임	농 협
20080303	강성욱	하 나	20080328	김태민	농 협	20080305	비룡사	농 협	20080201	이남숙	국 민	20080325	정은숙	국 민
20080222	강세환	신 한	20080204	김향숙	농 협	20080211	설정숙	국 민	20080303	이남숙	국 민	20080204	정은선	농 협
20080225	강세환	신 한	20080229	김현미	국 민	20080310	설정숙	국 민	20080211	이병기	우 리	20080303	정은선	농 협
20080325	강세환	신 한	20080213	김현우	국 민	20080307	성불하세우	국 민	20080311	이병기	우 리	20080215	정현아	우체국
20080315	강원자	국 민	20080204	김현우	국 민	20080212	성불하세우	국 민	20080331	이상호보시	농 협	20080317	정현아	우체국
20080314	강재연	국 민	20080303	김현운	국 민	20080215	소만초교	농 협	20080229	이선희	외 환	20080211	정훈	우체국
20080203	고민우	국 민	20080301	김혜영	우 리	20080317	소만초등학교	농 협	20080331	이선희	외 환	20080311	정훈	우체국
20080306	고민우	국 민	20080227	김홍규	국 민	20080218	송진숙	농 협	20080222	이성욱	농 협	20080318	정훈	우체국
20080328	고서희	국 민	20080328	남정호	국 민	20080317	송진숙	농 협	20080324	이성욱	농 협	20080215	조명순	신 한
20080325	곽도건	국 민	20080211	노재성	농 협	20080312	신승희	국 민	20080328	이승희	농 협	20080317	조명순	우체국
20080325	곽도원	국 민	20080310	노재성	농 협	20080211	신연화	농 협	20080222	이성례	국 민	20080228	조명순	우체국
20080317	곽영자	농 협	20080229	대한불교조계	농 협	20080307	신연화	농 협	20080304	이양자	농 협	20080328	조명순	우체국
20080225	구영미	국 민	20080331	대한불교조계	농 협	20080204	신연화	국 민	20080211	이연숙	우체국	20080204	조명순	우체국
20080325	구영미	국 민	20080321	독일김동한	국 민	20080303	신연화	국 민	20080307	이연숙	우체국	20080207	조명순	우체국
20080326	권영희	농 협	20080226	류남숙	농 협	20080219	신영덕	국 민	20080205	이영미	국 민	20080211	최명임	신 한
20080218	권영희	국 민	20080229	류대원	우체국	20080228	신한부티미널	국 민	20080314	이윤주	농 협	20080310	최명임	신 한
20080218	권영암	농 협	20080325	류대원	신 한	20080304	신한서초남	국 민	20080201	이지연	국 민	20080322	최봉희	국 민
20080229	김갑순	농 협	20080317	무명	외 환	20080229	신한정	신 한	20080303	이지연	국 민	20080303	최재경	농 협
20080331	김갑순	농 협	20080318	무명	외 환	20080331	신한정	신 한	20080205	이항영	농 협	20080229	최태연	농 협
20080226	김계남	국 민	20080321	무명	외 환	20080218	심정섭	국 민	20080309	이항희	농 협	20080331	최태연	농 협
20080326	김계남	국 민	20080323	무명	외 환	20080317	심정섭	국 민	20080325	이항희	농 협	20080320	최태연	농 협
20080325	김광숙	국 민	20080327	무명	외 환	20080301	아브간	농 협	20080318	이화순	농 협	20080324	최태연	농 협
20080205	김기환	농 협	20080227	무명	외 환	20080205	안기숙	농 협	20080211	이화순	농 협	20080219	최태연	농 협
20080305	김기환	농 협	20080220	무주상보시	외 환	20080326	안기숙	농 협	200803-0	이화순	농 협	20080319	최태연	농 협
20080214	김명숙	농 협	20080228	무주상보시	외 환	20080321	안성삼	국 민	20080312	이호정	국 민	20080321	최태연	농 협
20080319	김명숙	농 협	20080307	무주상보시	외 환	20080201	안성삼	국 민	20080205	인도결핵퇴치	농 협	20080321	최태연	농 협
20080327	김명숙	국 민	20080225	문화경	농 협	20080303	안성삼	국 민	20080205	인도결핵퇴치	농 협	20080324	최태연	농 협
20080218	김미경	국 민	20080325	문화경	농 협	20080204	안성삼	국 민	20080225	인도모자보건	외 환	20080314	최태연	농 협
200803-8	김미경	국 민	20080220	박낙범	우체국	20080228	안성삼	국 민	20080325	인도모자보건	외 환	20080201	최태연	농 협
20080216	김미란	국 민	20080320	박낙범	우체국	20080225	안성삼	국 민	20080304	임기연	국 민	20080303	최태연	농 협
20080204	김미정	기 업	20080225	박명희	국 민	20080324	안성삼	우체국	20080205	임상식	국 민	20080218	최태연	농 협
20080229	김세준	우 리	20080218	박무춘	국 민	20080220	안성삼	우체국	20080219	임상식	국 민	20080317	최태연	농 협
20080331	김세준	우 리	20080201	박상아	농 협	20080320	안성삼	우체국	20080317	임영희	농 협	20080229	최태연	농 협
20080225	김수연	국 민	20080303	박상아	농 협	20080201	안성삼	우체국	20080229	임영희	농 협	20080229	최태연	농 협
20080325	김수연	국 민	20080303	박선영	국 민	20080229	안성삼	우체국	20080331	임창숙	농 협	20080229	최태연	농 협
20080201	김순실	국 민	20080305	박선영	국 민	20080330	안성삼	우체국	20080215	임태산	국 민	20080215	최태연	농 협
20080320	김옥성	우 리	20080220	박선자	농 협	20080324	안성삼	우체국	20080312	장정숙	하 나	20080312	최태연	농 협
20080215	김원희	신 한	20080320	박선자	농 협	20080220	안성삼	우체국	20080210	장병대	농 협	20080210	최태연	농 협
20080317	김원희	신 한	20080212	박승주	우체국	20080218	안성삼	우체국	20080308	장병대	농 협	20080308	최태연	농 협

물품 후원 내역

- 서울 반포 김스 클럽 : 문구류 2 박스
- 충남 서산시 미륵사 주지스님 : 남자 상의 12장, 하의 4장, 속옷 8장, 양말 23장 , 모자개, 수건류 17장, 목도리 2개, 타래실 9개
- 카파 코리아 : 아동 신발류 176박스 8,247쪽 (188,137,300 원 상당)
- 육혜경 : 컴퓨터 1대
- 장남주동 : 아동 여아 신발 5족, 선풍기 2개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4월 20일까지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합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140-003-963427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체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가, 민족, 종교,
계급,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
많이 있습니다.

제이티에스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서로 만나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